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18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1. 10. 29(금) 14:05~18:36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회의실),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1. 성원 보고

박중관 위원장 : 제318차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안건 중에는 국회지정사업(뉴서울오페라단)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1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와 같이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영상 회의를 통해서 참관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회의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예, 지금 현재 위원님들 중에서 7인이 대면으로 참석해 계시고 4인이 온라인 영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1인이 불참 중이십니다. 그래서 위원 12인 중에서 11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박중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구요. 지금 현재 강보경 문학지원부 차장을 비롯한 총 6인의 안건 관련 직원이 함께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장에서 직접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본부장과 부장 등 간부들이 현재 회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노조위원장께서도 현재 회의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미리 알려 드리고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중관 위원장 : 사무처장 직무대행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예, 전차(前次) 회의 관련 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15차 전체회의에서는 1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간담회를 통해서 개최된 제316차 임시회의에서 제8대 위원장 선출시기(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유보되었고 동 안건에 대해서 제317차 서면회의를 통해서 11인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중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316차와 제317차에 걸쳐 오랜 속의 끝에 내려주신 8대 위원장 선출시기(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318차 전체회의 말미에 별도로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다는 진행순서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은 의결안건이 2건 올라와 있는데요. 공연예술창작산실 잔여예산 활용계획 수립과 2021년도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 및 향후 공모사업 적용방향 결정입니다. 2건의 의결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은 공연예술창작산실 잔여예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본 의결안건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자료는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잔여예산 활용 계획(안)입니다. 올해 전체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모두 지원이 되었으나 연극, 전통예술, 뮤지컬, 음악 등 4개 분야에서 일부 교부결정 취소 건과 사업포기 2건 그리고 심의 잔여예산이 있습니다. 그 해당 예산이 3억 8,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창작산실에 대해 과거에 지속적으로 CGV와 네이버 등과 영상 제작을 통해서 송출함으로써 유통을 확산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그 사업들에 대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기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쪽의 사업목적을 보시면 공연예술창작산실 역대 선정작(최근 5개년(16'~20)) 249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중 공모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작품들에 한해서 작품 당 1,200만 원씩 영상제작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단체에게는 저희가 CGV와 네이버 등과 협의를 해서 직접 공연이 상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르는 공연예술분야 전 장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 및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르코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CGV를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단체와 영화관이 각각 5:5로 티켓 수익금을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후원라이브 같은 경우는 네이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체가 모두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선정된 단체들이 직접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최근에 인터파크TV나 줌을 통해서도 공연실황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 배급처의 기준 등을 준용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은 3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심의기준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

고 사업추진일정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11월 1일 또는 2일에 공모가 올라가서 최소한 12월 초에 심의를 통해서 12월 초까지 교부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안전번호 제911호 공연예술창작산실 잔여예산 활용 수립계획의 보고를 받으셨으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사전의견을 내신 위원님은 안 계셨습니까?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사전의견은 없으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을 한다는 목시적 의견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의사항이 없는지를 일단 확인할까 합니다. 혹시 의견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절차로 들어갈까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접속을 한 분도 계셔서 찬성도 역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가 없고 전원 찬성을 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 및 향후 공모사업 적용방향 결정의 건은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안전번호 제912호입니다. 페이지는 자료에서 1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후보단 선정위원회와 2차 후보단 선정위원회에 모든 위원님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후보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7조 제4항 5호에 보면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원의 추가 등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결을 요청 드리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3건이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드릴 부분이 4건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결사항으로는 제 1차 심의위원 후보단 위촉으로.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이 사안은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나오는 문제로 회의를 비공개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공개로 할 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명단을 익명 처리한 상태로 오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공개회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보고를 받고 추가로 본격적인 심의 때 비공개로 처리하여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먼저 보고를 할 때 공개됨을 유념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때 비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

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0쪽입니다. 3번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심의위원 후보단 위촉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1차에서는 228명 그리고 2차 회의에서 25명으로 총 25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정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1쪽의 2번을 보시면 옥설 및 비방 메일을 보낸 회원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21쪽 중간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조는 스스로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굳이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8호에 품위손상이나 직무수행의 부적절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8조 제7호에 의해서 해촉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십사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1쪽의 3번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전담심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전담심의제로 하게 되면 향후에는 유사 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74명이 통상 1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음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담심의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심의 말고 다른 사업에 신청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다만, 심의 부분은 전담심의위원을 하기만 하면 해당 사업의 심의 말고 다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의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심의위원 풀에는 있으면서 어떤 분은 다 할 수 있는 반면은 이분들은 심의위원 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한번 했다는 것 때문에 1년 동안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의 생각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번 1차와 2차 회의를 통해서 심의위원을 하셨던 분이나 풀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풀어졌으면 한다는 게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2쪽의 253명에 대한 선정 부분에 대해서 23쪽을 보시면, 사실은 284명이었는데 5명이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예명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번에 신청을 해서 중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당초 회의할 때는 284명을 놓고 했습니다만, 등록을 하라고 하니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등록된 분 5인을 제외하면 279명에 대해서 1차와 2차 후보단 중에서 253명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분은 전문분야1에도 신청하고 전문분야2에도 신청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1개만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수의 기준이 장르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386건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4쪽입니다.

추가 논의안건이라고 한 6번입니다. 여기에는 덜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신나는 예술여행은 박스에 있는 것처럼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어서 심의위원 풀에서 전산으로 돌리면 순위가 자동적으로 매겨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순위가 매겨진 것에 대해 섭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작위 추첨제가 아닌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담심의제고요. 또 하나는 적격자 지정방식의 심의인데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무처에서 2배수, 위원님들이 2배수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등에서 하고 있는 무작위 추첨방식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논의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참조해야 할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월 5일에 의결을 해서 ‘공연예술분야 공모 지원사업 공

정성 제고'라고 해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의견을 써 놓은 부분이 있는데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심의회 대해서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개선안을 보면 “17개 시도에서 심의위원 후보 총괄위원회도 17개 시도가 요청하면 그냥 무작위 추천해서 줘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조사할 때 이종국 부장 등 지원총괄부에서 대응을 했는데 그쪽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전담심의위원뿐만 아니라 2배수로 하는 적격자 부분도 사무처나 위원님들의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총들이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없애자.”라는 부분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전할뿐만 아니라 개선의지에도 보면 그렇게 하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담당하는 본부장이나 부서장의 얘기는, “신나는 예술여행 같은 경우 창작과는 달리 향유로 수월성을 조금 덜 보는 부분이 있고 풀을 구성할 때 이미 저희들이 검증을 한 후 풀에 넣고 거기에서 뽑는 부분이라서 그냥 가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쭙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그리고 보고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추가 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기 전에 우선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심의위원 후보단 결정을 위해 서면회의를 진행한 결과 꽤 많은 숫자의 부적격자가 생겨서 새롭게 심의위원 선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몇 분의 위원님들께 문제 제기를 받아서 지난 26일 오후 2시에 대면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가 오늘 보고되었습니다. 본부장이 보고를 한 대로 원만한 수준의 합의가 되었음에도 2가지는 분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논의된 논의의 결과를 받아 의결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나는 예술여행’ 문제가 현행 제도가 무방하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있는지를 위원님들께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면의결과 대면 협의로 이루어진 오늘 보고된 안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제안하실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사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란 위원 :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추가 논의안건으로 무작위 추천방식에 의해서 지원심의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때도 제가 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어떠한지는 이미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심의위원 풀에 대한 신뢰라든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검증을 하고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추천방식에 의해서 선정된 심의위원이 과연 기존의 심의결과를 봤을 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은 현장에서 계속 문의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적격자 지정방식에 대해서 자의성 개입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권고사항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쨌거나 심의가 진행되고 심의결과에 대해서 현장에는 신뢰감이 가는 형태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인 단위에서의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위 추천방식이 저희가 구성한 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논점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풀의 구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는 모

르겠는데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접근하게 되고 심의위원 풀을 열어보게 된 상황에서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기존 풀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저는 좀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무작위 추첨방식밖에 방법이 없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풀이 어떤 식으로 관리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심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현재의 풀을 가지고 무작위 추첨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2차례 논의한 심의위원 후보단에 대한 위원회 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일단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추가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비공개로 논의를 계속해 나갈 텐데요. 정유란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주요 내용은 ‘신나는 예술여행’처럼 심사위원 무작위 추첨 제도가 갖고 있는 신뢰성의 한계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한 권고사항들과 맞물려서 어떻게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을 하셨으니까 비슷한 맥락의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일단 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정유란 위원님의 질문은 무작위 방식이 현행되어도 무방하다고 하는 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종열 위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열 위원 : 정유란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신나는 예술여행’에 지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적격자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하고 있듯이 그룹별로 나눠서 심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먼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고 실제 지원을 받는 분들의 %를 알 수 있을까요?

박종관 위원장 : 2가지 질문을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제가 지금 ‘신나는 예술여행’에 대한 정종열 위원님 요청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가 않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일단 예술확산본부나 지역협력부 쪽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통계자료나 일반적인 자료들을 요청해서 즉시 알려줄 수가 있는지를 타진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와 나란히 정유란 위원님과 정종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의 맥락이 같습니다. 지금 있는 심의제도가 과연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소략해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국민권

익위원회에서는 조금 객관성을 가지고 어쨌든 개입 없이 하자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는, 수월성보다는 향유 부분이라서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 왔다는 부분으로, 잘해 왔다는 표현보다는 해 왔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유란 위원님께서서는 현장의 얘기를 들으시고 “과연 이렇게 해 왔더니 제대로 된 단체가 뽑혔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서요. 최종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이 권고이기는 하지만 조금 힘이 센 권고라고 이해하시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의견입니다. 정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적격자로 무작위 추천하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전문성과 수월성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강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회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은 정유란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고민에 따라서 얘기해야 하는 부분으로 무작위 추천방식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무 측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심의위원 풀을 2,000명 넘게 운영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심의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3분의 1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후보단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만약 향유 사업에 대해서 무작위 방식을 하면 안 된다고 위원회가 결정했으면 나머지 3분의 2의 후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향유 사업 관련해서도 적격자 방식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것을 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아르코혁신의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위하여 심의제도 혁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논의사항들을 오늘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심의제도 혁신과 관련한 내용을 오늘 논의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차후에 결정해도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답변을 드린다면 어쨌든 내년도 심의할 때, 11월 8일까지 정기공모로 ‘신나는 예술여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12월 안쪽으로 끝내고 12월 말경에 확정 시켜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율되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올해는 그대로 가고요.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 제기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11월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위원님들만의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홍태림 위원님께서서는 소위지만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 간의 결정으로 끝난다고 하면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시고 종료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현장소통이나 정책소위를 통해서 스크린이 되고 간담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테면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 ‘신나는 예술여행’의 심의과정의 공정성이나 결과의 합리성 같은 것을 위한 제도 개선의 여지를 열어놓고요. 그 논의는 11월 간담회로 하고 그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2022년도 정기공모의 심의에 반영할 수 있으면 간담회로 이 논의를 옮겨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시면 이른바 두 번째 안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때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요. 우선 2번의 논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인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는 의결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추가 논의사항이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렇지 않다면 2차례의 논의결과를 통해 올라온 제912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모두 손을 들어주셔서 찬성을 확인했습니다. 반대가 없고 모든 위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단, ‘신나는 예술여행’ 등에 관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여 2022년 정기공모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반영한다는 정도의 방향을 잠정 합의하는 단서를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말씀드린 대로 국회지정사업인 뉴서울오페라단 사업추진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를 먼저 받고 다음 보고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서울 오페라단의 단장님이신 홍지원 단장님과 정규대 기획실장님께서 직접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양한성 국제교류부장이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차례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첫 번째 보고안건 국회지정교부사업 교부의 건 뉴서울오페라단에서 주관하는 해외 공연의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코리아웨딩’이라는 사업명으로 국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실제 공연명은 ‘시집가는 날’이라는 행사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문예진흥기금은 총 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태국 현지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대관 등의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태국참전용사협회와 공동 주최로 실제 협력관계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지원금 사용 계획 등을 저희가 접수 받아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최 기관과의 교류조건이나 역할분담 등을 분명하게 했고 공연제작비 중심으로 세부 항목별 사례비 등의 단가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저희가 이미 교부해 드린 교부신청서의 내용으로 최대한 업그레이드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제시해 드린 교부신청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부신청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교부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단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안녕하세요? 저는 뉴서울오페라 대표 홍지원입니다. 저희 단체는 오페라를 2000년도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한국창작오페라를 많이 만들어온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2005년에 ‘아, 고구려’를 만들어 최초로 평양에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시집가는 날’ 오페라를 새롭게 제작해서 중국 상해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또 2016년에는 중국 정부에서 ‘사마천’이라는 오페라를 저희에게 의뢰해서 창작오페라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우리의 창작오페라를 세계화를 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작품의 기획배경은 2015년에 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한국오페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당시 쿠데타로 인해 하지 못했고 이번에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프로포즈를 받아서 올해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관계로 공연이 연말로 미뤄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서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관객이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라는 곳은 최고 왕실의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있습니다. 왕실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왕실 소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왕실의 초청으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20일에 대규모로 가서 오페라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단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락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나라 간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인데요. 공연을 하러 가거나 가서서 격리하는 일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정상 계획의 변수는 없는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예, 이 계획이 현재로서는 12월 20일에 공연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변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공연단은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에는 격리는 없다고 했지만 그쪽에서 연락을 받기로는 하루 정도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그게 격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 하루 동안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도 최소 5만불 이상의 보험을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격리 아닌 격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태국에 오페라로 처음 가는 것인데요. 행사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명씩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부대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통혼례 같은 것과 한복도 입혀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과 연습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의 변동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열 위원 : 안녕하세요, 단장님. 단장님께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시집가는 날’의 작곡가가 누구죠?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임준희 선생님입니다.

정중열 위원 : 그런데 교부신청서 어디를 봐도 작곡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요. ‘시집가는 날’은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88년도에 한 것도 있고 86년도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모두 똑같은 분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영진 선생님이죠.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죄송합니다. 저희는 임준희 선생님께 부탁했고 각색도 했습니다. 그것은 오영진 선생님의 것이 아니라 새롭게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당연히 그렇겠죠. 답변이 되었습니다.

정중열 위원 : 그래서 보면 뉴서울오페라단이 ‘시집가는 날’을 가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연을 하셨고 특히 중국에서 많은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태국에서 공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역을 넓히는 의미에서 좋기는 한데요. 여기에 뭐라고 적으셨느냐 하면, “해외에 우리의 창작오페라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서양오페라를 통해서 알리는 것.” 그리고 “한국의 최고 예술가들로 오페라를 통해 한국을 알리겠다.”라고 적으셨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작품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연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임준희 선생님을 잘 알고 훌륭한 작곡가이시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최소한 연주단체라고 했을 때, 성악가가 6명이라고 적었는데 6명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지 않나?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연주를 한다고 했을 때 합창단은 결정되어 있는데 오케스트라단에 대해서는 그냥 ‘코리아오케스트라’ 라고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조직을 한 것 같은데요. 원래 있는 단체입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양진모 선생님이 20년 전부터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정중열 위원 :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설명도 없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연주가 잘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좋은 곡을 가지고 가서 연주에서 미숙하면 한국문화를 알린다는 것이 도리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주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함께 하는 양진모 지휘자가 2005년에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의 연주자들을

여기에 기입하지 않은 것은 서류상의 실수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위험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저희와 가장 많이 했던 가수들, ‘시집가는 날’을 가장 많이 했던 연주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태국공연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집가는 날’을 가장 많이 연주한 가수들이 적합할 것 같아서 가수의 자질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용단도 ‘국수호 디딤 무용단’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의 무용단인 것 같고요. 합창단도 전문 합창단으로 저희가 꾸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영진 선생의 ‘시집가는 날’은 1950년대의 작품입니다. 1950년대에 한국 희곡을 대표하는 작품이라서 영화화되었기도 하고 국악뮤지컬로 만들어지고요. 인접 장르에 영향을 많이 미친 한국을 대표하는 희곡이고 고전이죠. 아주 쉽게 ‘갑분이’, ‘이쁜이’는 우리 동네의 사람인 것 같잖아요.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만큼 친숙한 우리 고전의 이야기가 기본 줄기인데요. 요즘 한류의 새로운 형성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고전을 가지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국에 가서 소기의 좋은 공연목적을 내기 위해서 악조건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격리도 해야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 공연장은 객석 제한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제한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바람이 커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저는 오페라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부대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연을 한다고 하는 그날 부대행사가 있는데요. 한복 입기, 혼례식 등 관객 500명을 예상하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대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코디네이터나 이 행사를 진행할 기획자 등 전문가가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그것은 태국 현지에서 행사를 할 그런 전문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공연장 홀에 한복을 걸어놓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워낙 한국에 대한 호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거기에서 혼례하는 것을 태국 현지의 사람들이 웃을 입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공연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기획자는 현재 섭외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오페라의 부대행사입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정정숙 위원 :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부대행사라는 것이 그야말로 사이드디시처럼 부대행사가 돼서 전통문화를 체험한다는 것이 부실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페라를 직접 경청하러 오신 분들에게는 부대행사가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일반인들에게는 중요한 체험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예.

정정숙 위원 : 그리고 한복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숫자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 하더라도 질적으로 보장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서 체험을 하게 하셔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확인 차 문의를 드렸습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를 하시죠. 혹시 정규대 기획실장께서도 어렵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규대 뉴서울오페라단 기획실장 :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예술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태국에 가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표해서 가는 성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국격에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문예진흥기금은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 예술, 특히 어려운 한국예술을 버팀 하는 최후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때로는 현장 예술계에서 몇 백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며칠의 밤을 새워서 기획서를 씁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목돈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잡은 것은 어찌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서 혈맹관계에 있는 태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아름다운 가교로 연결시켜야 할 책임도 있을 것이고요. 위원회가 그 목적이 모두 완성되도록 때로는 평가도 할 것이고 때로는 도움도 줄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오셨고요. 출석과 답변이 모두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차분하고 자세하게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게 감사드립니다. 먼 길을 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녕히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사업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논의를 이어갈까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두 분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종열 위원 : 저도 태국에 가서 연주를 해 봤는데요. 태국은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통예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양음악이라고 했을 때 거부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왕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다면 전통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태국은 전통이 강한 곳이라서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가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뉴서울오페라단이 준비한 것은 그런 것보다는 현대적인 것에 가까워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종열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술단체의 창작 과정에 개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분들의 과정을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같음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인주 위원 : 저희가 이런 경우에도 현장평가를 하잖아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박종관 위원장 : 저도 사실 궁금해요. 사업 장소가 외국일 경우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평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국제교류 사업은 예전에도 해외에 직접 가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상으로 많이 전환되고 오프라인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영상화 하거나 온라인 버전화 하는 결과물 제출이 보편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디지털 결과물을 의무화해서 전수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전에 보고를 드린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비상임위원 1명과 해당 전문위원 2명씩 해서 3명으로 꾸려서 각각 현장모니터링을 시행했고요. 이 부분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오페라이기 때문에 정종열 위원님과 새로 오페라 쪽의 선생님을 모셔서 3명으로 꾸리되 현지에 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체한테 안내를 해서 디지털 결과물을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해서 사후에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강구중입니다.

유은선 위원 : 정종열 위원님 의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해외로 공연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금으로 가는 것이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지만, 평가를 하는 것만큼은 정말 객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악, 전통 같은 경우에도 전통음악 단체이기 때문에 나가지만 정작 나가서 하는 공연은 전통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개최하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추가 의견을 주시죠. 없으시면 이 사안은 접수를 받도록 하고요. 지금 국제교류부장이 보고한 대로 평가를 진행하여 다시 한번 논의하는 수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이 사안을 접수 받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신나는 예술여행’ 유형별 지원결정 총괄 현황과 문화예술 향유지원 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도착되어서 논의의 매듭을 지었어야 했습니다만 국회지정사업 뉴서울오페라단 사업추진 계획 보고로 인해 담당자분들을 계속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서 먼저 보고와 논의를 이어갔고요. 지금 위원님들 앞에 현황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고사항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송시경 본부장께서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지금 드린 자료처럼 제일 윗부분이 20년도 자료이고 그 밑의 부분이 21년도 자료입니다. 정종열 위원님께서 건수가 많다면 다른 사업에서 하듯이 쪼개서 하는 부분으로 아까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신나는 예술여행’은 21년도 기준으로 밑의 박스를 보시면 신청건수가 970건이고 국민일반은 520건이고 특수는 260건으로 해서 1,764건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20년 것인데요. 그때는 매칭형, 기획형, 청년형이라고 해서 지원신청건수가 2,329건으로 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홍태림 위원께서 제시해 주셨던 대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빠르다면 위원회 11월 간담회 때 보고가 될 수도 있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때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종열 위원 : 예, 그러면 아동·청소년, 일반, 특수 등은 분리해서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세분화하고 심의위원 분야를 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아마 논의거리가 좀 있을 텐데요. 논의거리는 모아서 간담회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2건을 마치고 이미 보고안건 1건을 해결했습니다. 오늘은 앞서 보고를 드린 국회지정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해서 총 8건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보고안건의 정리를 위해서 사무처장 직무대행께서는 보고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예, 보고안건은 총 8건 중에서 1건을 했고요. 나머지 7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전체 보고 중에서 소위 활동 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기록원 보고부터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아르코예술기록원 활성화 TF 활동 경과를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이어서 소위원회와 TF 운영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릴 텐데

요. 임 원장님께서서는 핵심을 중심으로 짧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아르코예술기록원 활성화 TF 활동 경과와 이어지는 관련 중요 포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월 말 5차 회의부터 10월 8일 8차 회의까지 그간에 총 4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각의 회의에서는 기록원 공간운영 방안을 위한 당인리 문화공간 운영방안의 논의 그리고 문예진흥법 개정을 위한 실행계획 논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문예진흥법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고 문체부와 협의를 하면서 TF 내에서 계속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크-문예진흥법 개정 작업을 위한 사전 국회 포럼을 기획하고 그 부분을 의원실과 문체부 그리고 TF 내부에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TF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향후 계획으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포럼을 추진하고요. 포럼은 11월 29일 예정입니다. 포럼을 추진하고 의원실과 협력해서 문예진흥법 개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작업은 활성화 TF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예술아카이브의 허브 역할을 위한 2023년도 신규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간의 TF 활동보고서 작성 등을 중심으로 해서 11월 말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를 보시면 붙임자료 1번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고 이미 많이 동의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은 TF에서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술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노력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법에 언급되고 근거조항을 마련할 시기가 되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에서 수집되는 예술자료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개정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 개정 법률 내용은 사실 무척 간단합니다. 자료 41페이지 상단에 2가지인데요. 제4조의 3으로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으로 해당하는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붙임2는 관련된 형식적인 개정법률안과 친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오전에도 의원실을 다녀왔는데요. 46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계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국가문화예술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포럼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일시는 11월 29일 월요일이고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위드코로나로 코로나 대응 방침이 바뀌면서 국회에서 가능하다면 국회 세미나실을 통해서 추진하자고 의원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식은 어쨌든 토론자와 발제자만 참석하고 관객은 받지 않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최/주관은 문체위의 간사인 박정 의원실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함께 하기로 했고 지금은 의원실 한 군데를 더 접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기초 발제는 예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하셨던 김병익 선생님께서 맡아 주시기로 하셨고 현재 한국문화예술 기록관리 체계와 사례로 본 예술아카이브 운영현황을 바라보고 발제3에서 문화예술아카이브 수집·보존·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화 방안. 정책과 행정적인 지원, 시스템화, 법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장르별 아카이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예술 활동가들이나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장르별 특성과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생중계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발제와 토론자들만 현장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말미에 임주연 부장이 언급한 대로 질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잠깐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 보고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김병익 전위원장하신 것 같습니다. 김병익 전위원장은 1기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셨습니다. 외부 활동을 자주 하지 않으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존경을 받으시는 예술계의 큰 어른이신데요. 예술기록이라는 부분에 관한 중요성을 쉽게 동의해 주시고 전체 발제를 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분이 말으신 것보다 훨씬 더 흡족한 결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일에 저희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날 같이 가서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일이 잘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몇 번 강조합니다만 60년대에 전성기가 걸려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술의 바탕을 놓으신 겁니다. 이분들이 전부 노년기가 돼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표현이 경망스럽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놓여 있어서 예술자료라는 것들을 무엇보다 소중한게 잘 모아야 할 때에 있다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정정숙 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간단한 질문이기도 하고 확인 작업입니다. 사실 ‘예술기록원 활성화’라고 할 때 가장 처음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기록원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제가 확장돼서 활성화로 갔기 때문에 보고 자체가 완성도도 높고 이해도 잘 되는데요. 다만, 공간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한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그동안 활동 경과를 보시면 5차 회의에서 당인리가 한번 언급되고 그 다음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TF 초기부터 당인리 문화공간에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실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문체부와 그동안 접촉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반응이 시큰둥했구요. 그래서 현재 고민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당인리 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물론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노력 중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4분 이원재 위원 온라인 접속)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 중에 15시 34분에 이원재 위원님께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셨습니다. 12인 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우선 아르코예술기록원 활성화를 위해서 TF에서 힘써 주신 장인주 위원님, 정종열 위원님 그리고 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진전을 이뤄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토론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기록물의 수집·보존의 필요성이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예기금의 용도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한다고 개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위원회의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도출된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도출되었다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 문예진흥기금의 재원 안정화라든지 확대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토론회의 주요 내용 중에서 발제3에 ‘문화예술아카이브 수집·보존·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화 방안’이라는 세션이 있는데요. 여기에 법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다룬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서 문진금의 재원 안정화나 확대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뤄질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법제도화가 되었을 경우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술아카이브가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운영되기 위한 장기 인력 전망이라든지 중장기 인력 전망은 저희가 2019년도에 외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카이브를 새로 건립했을 경우 필요한 규모라든가 예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 신규 예산 반영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요즘 각계의 공연단체들이나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아카이브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그 아카이브를 개별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우리 것을 써라.”가 아니라 그 아카이브를 한꺼번에 활용하고 같이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 목표라고 봐서 2023년도 신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3년이나 4년 동안 100억의 규모, 2023년도는 50억 규모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원 안정화 등은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만 기금재원 마련이나 안정화 부분이라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발제에서 문예진흥기금 재원 부분이 논의되는 것은 발제자와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보시면 ‘기관 사례로 본 예술아카이브 운영현황’ 이라고 있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이 문제는 실제 토론회 내용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의 강화 방안과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아카이브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토론회의 모더레이터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주도하는 라운드 테이블에 반영하여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홍태림 위원이 지적하신 문예진흥기금의 기금 조성의 안정화 등과 관련해서는 늘 여러 가지 방위로..... 저희가 돈이 있어야 문예진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대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저는 문화예술기록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기금의 용도를 적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 제4조의 3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기록아카이브에 대한 시책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문화부에서 체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들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예산도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지방의 각종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방정부와 함께 통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지적은 타당한 것 같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보고를 받고 접수를 받고 추가계획을 한번 더 보고를 받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고예술기록원 활성화 TF 경과보고와 관련해서 추가 의견이 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없다면 접수를 받도록 하고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와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정책혁신부장이 보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보고를 하시고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해 주시는 순서로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10월 14일 제20차 정책혁신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술변동에 따른 예술지원의 방안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저희 정책연구 부서의 예산으로 외부에 연구과제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이 직접 참여해서 연구 진행결과에 대해서 정책혁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3개의 워킹그룹 진행상황. 즉 예술의 현재성 연구, 기후위기와 예술지원의 정책방향 그리고 기술변동에 따른 예술방안 등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공유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48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아르고대토론회를 올해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된 방향은 일단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이 부분은 합의가 되었고요. 전체 12개 세션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소위원회 별로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3개 과제에 대해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합의가 되었고요.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의견이고 대토론회가 단지 이슈에 대한 담론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 아르고 혁신과제 23개 추진경과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시행되었던 정책혁신대토론회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회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여쭙는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장소통 소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소통 소위원회 홍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제30차, 제31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용 파악이 가능한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차 회의에서 주요했던 안건은 아르고 혁신의제 조직분야 9번 과제인 한국문화지원협의회 역할 강화였습니다. 이 안건을 현소위에서 다루게 된 게 현재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에서 아르코 혁신의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하면서 소위원회와 각 부서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분류한 바가 있고요. 그 결과 현장 소위에서 추가 검토가 요청된 과제가 한지협 역할 강화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의견 반영입니다. 그래서 30차 현소위 회의에서 한지협 사무국장님, 간사님과 자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한지협의 협력으로 현소위가 진행해온 지역간담회와 아르코대토론회는 위원회가 바뀌는 것과 관련 없이 현소위와 한지협의 정례화 된 업무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문화 분권 차원에서 예술위의 여러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한지협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관연이나 전지연 등 유관 협의체와 한지협이 차별을 두기 위해서라도 한지협이 지역문화정책 이슈의 이해관계자인 행안부나 문체부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자가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바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0차 위원회는 이 정도가 주요한 내용이었어요. 31차의 주요 안건은 30차와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31차에서 ○○○의 기관장 임명 건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최근 32차에서도 다뤄졌고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현재 예술위에서 공연예술활동지원 사업 심의와 관련하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이 있던 인사가 ○○○의 신임 기관장으로 임명되어서 언론과 예술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현소위가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를 해야 되겠냐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30차와 31차 현소위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니까 이것은 지자체의 사항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현소위가 올해 1월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입장문에서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하는 내용을 고려해서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차와 31차 현소위 회의에서는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의 기관장으로 임명된 추이를 살펴 보면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금 더 숙의를 해 보면 좋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31차 회의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최근에 열린 32차 현소위 회의에서는 제가 현소위 위원님들께 블랙리스트 TF에서 이 사안을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그 논의를 통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 안건을 어떻게 다루고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일단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이 되면 현소위에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안 해도 될 것이고 만약 위원회 차원에서 입장표명이 안 된다고 하면 현소위 차원에서 입장표명이 필요한지 다시 논의를 해 보기로 한 사항입니다. 어제 블랙리스트 TF 회의가 있었고 이 사안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다룰지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블랙리스트 TF 보고 순서가 되었을 때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논의의 흐름을 위해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TF 결과 보고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미리 보고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원재 위원님도 접속이 되어 있으시죠.

정정숙 위원 : 이것은 나중에 하죠.

박종관 위원장 : 물론 나중에 따로 받을 텐데요. 왜냐하면 성평등 소위원회 개최 결과도 받

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보고가 끝나신 건가요?

홍태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록 보고안건에는 3차 회의 결과만 포함 되어 있는데요. 그저께 진행되었던 4차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차까지 진행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연말까지 진행될 연구사업에 대한 목표와 추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좀 무리한 일이지는 한데 정책혁신부의 부장님과 조준형 대리님께서 힘을 많이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20~30대 여성 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말까지 20~30대 여성 예술인들과 함께 FGI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불평등에 대한 통합적 구조, 연령과 진입의 취약한 상태와 젠더라는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고요. 이 결과들을 토대로 이후의 설문·설계안과 연구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표본들을 추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구진이 꾸러진 상태고요. 이 연구진이 별도로 추진력을 가지고 문헌연구와 현장예술인들과 함께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내용 분석을 12월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성평등예술 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에 대한 보고 공유를 마치겠고요. 추가로 그저께 진행된 성평등예술 소위원회의 내용이 문서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평등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규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고요. 추가로 지원총괄부에서 3개의 로폼에서 자문을 받은 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문한 원본을 저희가 직접 살펴보지는 않았고 저와 같이 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산 위원님께서 저희가 3개 로폼에서 자문한 내용들을 검토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가지고 저희 규정과 요약본에서 로폼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비교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 예술위원회 간담회 때 3개 로폼에서 나온 자문의견과 예술위의 성평등 소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일단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을 몇 가지 주셨는데요. 자격제한 기간 등은 추후에 같이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쟁점적인 것은 예술위가 지원사업 안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개입하고자 할 때 사법적 판단에만 기대서 판단하려고 할 때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판례나 긍정적으로 검토한 로폼의 의견 그리고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참조해서 규정 작업에 조금 더 추진력이나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고충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위가 이것을 완료해서 공개하는 것도 신중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좀 빠르게 공개해서 현장과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정책혁신 소위원회와 현장소통 소위원회,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받으셨는데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TF 논의로 넘어갈까요? 다만, 성평

등예술포 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61쪽부터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와 보고하신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미리 문건으로 요약한 위원회 활동 보고를 문건으로 받고 논의가 이어지면 효율적인 텐데 말씀과 보고로 의존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간담회 때 연이어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TF 활동 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 [가칭]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준비회의 개최 결과 보고를 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정책혁신부의 정 부장님도 저희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성평등예술포 지원 소위원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개최된 관계로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회의록에 담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준비회의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안건은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날 시간을 많이 쓴 부분은 심의위원 후보단 활동에 대한 한시적 제한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 전체회의의 간담회에서 검토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속과제 15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르코혁신 TF에서 제안한 23개 과제 중에 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조정·정리과제 3개와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과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 사무처에서 제안했던 문화예술분야 20대 정책 제안(안)에 대해서 자료 공유와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술의 가치 확산이나 기관의 현장 교류, 현장과의 교류 프로그램 현황 그리고 우리 직원의 내부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65페이지를 보시면 15개 과제에 대해서 TF에서 직접 다루기로 한 과제는 4개 정도로 정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관리를 해 나가는 차원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나머지 11개 과제에 대한 정리는 별도의 논의 안건에서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라 별도로 뺐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에 TF 회의가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피해자 소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르코혁신 TF에서 제안된 의제 검토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현장과 공유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르코대토론회를 활용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공유하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면 될 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 TF에서 자체적으로 다룰 예정인 4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서울시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번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보태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정정숙 위원 : 여기까지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였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15개 과제들 중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TF에서 꾸준히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4개의 과제를 제외하고 11개 과제에 대해서 사무처 전 부서가 해당되는 과제가 1개 있고요. 사무처 안에서도 각각 담당부서들이 가져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로 넘겨질 과제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3개 정도의 과제는 별도의 사업혁신 TF 등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3개의 과제를 다루면서 2023년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방향이나 사업구조조정 등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논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논의과제로 넣었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부터 논의할 사안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므로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논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운영 계획을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66페이지입니다.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운영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가 준비회의로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2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구성방식에 대한 문제로 외부 인원을 충원할 것인가? 그리고 명칭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이 있었고요. 진행되는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준비회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위원장님도 구성되었고 외부 위원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운영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보고안건은 'TF 준비'라는 말을 빼고 정식 보고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F 팀장님은 정정숙 위원님이시고 TF 팀원은 이원재 위원님, 정유란 위원님, 홍태림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님과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F 간사로는 정책혁신부의 김성범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운영기간은 내년도 5월까지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의 주요 활동으로는 아르코혁신 23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4개 과제에 대해서 직접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민사, 형사 소송에 관한 대응 문제나 블랙리스트 피해자 또는 저희 사무처 직원들의 회복 시스템과 프로그램 등 중장기 실천 의제 등에 대해서 도출할 예정이고요. 독자적으로 또는 저희 아르코혁신대토론회 등 저희 위원회에 있는 현장 공론화장을 통해서 계속 현장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저희 자문단 형식으로 모셔서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TF 팀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TF 위원님들께 결정해 주십사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TF 위원들께서 결정하신 거면, 더군다나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견이 없다고 하므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운영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온라인 회의도 병행하기 때문에 문자로 온 것 중에서 이진희 위원님께서 보고자료와 추가 보고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위원회를 준비할 때는 위원회 서류를 걸쳐 받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완성이 되면 추가로 의안을 새로 넣거나 자료를 추가로 내는 것이 어려워지죠. 거기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간격이 생긴 것은 제도적인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논

의하라고 하는 위원회 유연성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답변이 되셨기를 기대하고 다음은 ‘청년예술 TF’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홍태림 위원께서 직접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죠?

홍태림 위원 : 예. 지난 회의에서 비공식으로 진행되고 있던 청년예술 모임을 TF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감대만 확인해 주셨고 아직 TF가 정식으로 발족되기 위한 절차들은 아직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 5월까지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촉박한 상태라 이런 방식으로라도 진행된 상황을 공유 드리고자 회의자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1차 회의자료만 있어서 내용은 간단한데요. 이것도 사실 따로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지만 가안으로 청년예술 TF 팀장을 신민준 위원님이 맡아 주시면 어떠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제가 맡는 방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과 간사를 제외한 청년예술 TF는 현소위의 김재훈 위원님과 이진명 위원님이 계시고요. 정책혁신 소위의 성지수, 성연주 위원님 등 총 6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차 회의에 이어서 2차 회의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오늘 보고로 준비된 것은 1차까지입니다. 1차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청년예술 TF 출범과 관련해서 내년 5월까지 활동 로드맵을 11월까지 재구성해 보고 그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을 통해 저희 TF의 대략적인 청사진이라도 공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유정주 의원실이 예술인의 청년의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기도 하니까 괜찮다면 늦어도 2022년 초에는 TF 운영과 관련한 공조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청년예술 TF 운영기간 동안 8기 위원회와 연속성이 생길 수 있는 청년예술 의제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회의 이후에 정리된 내용들이 생기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원예술 TF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원 동료십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조속한 개선을 기대한다.”라는 특별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최대한 협의해서 보다 바람직한 제도를 현장이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7.8%로 100건이 신청하면 8건 정도가 선정되는 열악한 지원 형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떤 제도에 담는다고 해도 다원예술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할 것 같고 불만이 감소되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공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지시해서 다원예술지원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를 끝내고 어제 담당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의원들을 뵙고 증액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의 소리 측에 23일 간담회에 대한 답신이 어제 날짜로 도착해서 지금 현재 즉시 대안을 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논의를 하고 대안을 세워서 일정 정도 논의가 잡히게 되면 11월 간담회 때 급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사항 8개와 다원예술 TF와 관련된 보고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보고사항 전체와 관련해서 못 하신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다원예술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지시된 내용 중에 사례비 미지급 내용이 있었잖아요. 다원예술과 관련해서 이상헌 의원실에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심의 사례비 미지급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종합 국감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무처에서도 긴급하게 논의를 하시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 불용예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월부터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이제는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감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의비를 주겠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저희 불용예산이 있다면 그게 얼마든 소정의 사례비라도..... 보고서를 보니까 지원신청은 294건이더라고요.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 보면 6팀 정도가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예심에서 탈락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례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 288개 팀입니다. 팀 또는 개인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남아 있는 불용예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이분들에게 최소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술위가 논의하는 게 마땅한 수순이라고 여겨져서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받는 것과는 별도의 논의테이블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결정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다원예술에 대해서 처음 공고를 할 때부터 이 부분은 못 드리겠다고 했고요. 이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전체에서 다시 의결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금 운용변경이라든지 기타 절차도 생각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부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이것은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논의가 된 것이 아닙니까?

박종관 위원장 : 본부장님의 의견은 잘 들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위원이 낸 의견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논의해서 알려 드리는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감에서 지적을 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심의비를 안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안 주는 것이 맞고 사전공지에 안 주는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3월과 4월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문자를 드려서 말씀드렸는데요. “3만 원이라도 좋다.”, “5만 원이라도 좋다.”, “사례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우리 논의의 수순은 “이제라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상현 의원실에 보고서를 낼 것인가요? “죄송하지만 올해는 안 주기로 했고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정말 처참한 이야기는 사례비 미지급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고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만약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함구하고 지나갔을 때 해당 예술가들이 정말 사례비 미지급 소송이라도 하라는 얘기인가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국정감사가 끝나면 감사의견에 대한 처분이 있을 겁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라.’라는 결정이 있으면 국회의 결정이니까 이것을 사유로 해서 기재부와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시정해라.’라고 한다면 향후에, 그리고 11월에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을 뒤집으려고 하면 위원회 의결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재부와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 번 8월 중순에 간담회를 했을 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이 지금이라도 지급에 대한 논의를 하면 어떠냐고 했을 때 “예산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저도 예산이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그것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1월 중에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남아 있는 불용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변경해서 사례비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합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감에서 지적을 받음으로 근거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그 제안은 저희가 잘 아는데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체계를 보면 다원예술 부분에 대해서 4억 8,00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은 수용비인데요.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느라 수용비마저 거의 다 쓴 상황입니다. 논의하는 부분조차도 없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지적에 대한 감사 처분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를 해 주시면 사무처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작권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 5내지 10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저작권 부분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아이디어는 법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어요.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동료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완전무결한 제도를 추구하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부분으로 본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실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에 있고, 그 논의과정을 충분히 수용해서 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실무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대로 진행하기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일단 실무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TF도 만들고 전체위원회 이전에 이런 논의들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전담 기구들을 만드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 제어 없이 위원회로 올라오는 듯한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아보고요. 다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납득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위원이 위원회 때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제도나 행정에 대해서 완전하게 모르더라도 의견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서로 간에 조금씩 의견을 좁히는 정도의 배려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접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장르별로 분명히 1/n 플러스 알파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위원회 전체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박경주 위원님은 1/n로 의결을 하시지만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은, 저도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1/n 알파의 힘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의결을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 구조 속에서 따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결구조가 위원님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더라도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위원회 의결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도 해 주시고 그쪽의 불만도 얘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주 위원 :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6월에 현장은 난리가 났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고 현장 소위에 민원을 넣겠다는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것을 누가 막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어제 상임위에 갔다가 오셨다고 하시고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신 내용을 제가 전달 받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례비에 대해서도 함께 전달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달에 대해서 접수를 잘 받았습시다.

박경주 위원 :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15억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경주 위원 :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거기에 사례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제가 그 결정에 안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제안을 드리는 것이

고요. 여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기 때문에 사례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동의합니다.

박경주 위원 :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도 부끄럽고 그것을 사전에 생각하지 않은 것도 부끄러워요.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보고사항 9개를 모두 접수 받을까 하는데요.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보고사항을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잠시 휴식을 하셨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논의 사항

박종관 위원장 : 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아르코 23대 혁신의제 추진경과 검토 및 유관부서 연계와 관련해서 정책혁신부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들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아르코 23대 과제를 가지고 저희 블랙 TF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검토를 했고요. 23개 과제를 검토한 결과 조정이 필요한 과

제, 지속 수행하는 과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과제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서 국가예술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운법 제외,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 등 3가지는 저희가 조정필요과제로 저희가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완료과제 5개는 소위원회 활성화, 개방직 직위 도입, 신진예술인 도전기회 제공 확대, 다원예술 지원,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 발굴 등 5개 과제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8개 과제는 제외를 했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지속수행과제 15개가 있습니다. 이 지속수행과제 15개를 가지고 담당위원이 적혀 있듯이 각각 업무를 분장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단순수탁, 지정교부 사업 정비, 안정재원 확보 등은 하나의 과제로 저희 블랙 TF에서 다루기로 했고 심의제도 혁신, 예술의 가치 확산, 문체부와 예술위 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블랙 TF에서 직접 다루기로 했습니다.

별첨으로 드린 73페이지의 참고를 보면 나머지 11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에서 블랙 TF에서 하겠다고 한 것은 2번과 7번, 12번, 13번은 저희가 직접 다루기로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사적으로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기획조정부에서 정책혁신부에서 담당을 하든지 창작본부나 소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으로는 4번의 정책결정과정의 현장 의견 반영 등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사업혁신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이사항이고 나머지는 후속조치 제안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추가 논의사항이 필요하겠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5개 과제를 지속수행과제로 보고 하나하나 검토한 것은 사실 저희가 문체부 이행협치단에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77개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로 진상조사단 업무가 끝나면서 이행협치단이 되었는데요. 그쪽에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과제로 16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16건에 대해서 이행협치단 자체가 정리한 것을 보면 16개 중에 11개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과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가예술위원회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 변경, 기금안정화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우리 혁신 TF에 23개 과제 안에 거의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혁신 TF에서 나온 23개를 본 결과 지금 정 위원님께서. 우리 블랙리스트 TF에서는 정창호 부장님이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15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국 4가지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한 가지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치유를 위한 TF에서 계속 가지고 가자. 그래서 2번과 7번, 12번, 13번 등 4개의 과제는 우리 블랙리스트 TF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할 수 있으면 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이네요. “나머지 15개 중에서 4개를 제외한 11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4가지 방법이 나온 겁니다. 사무처의 모든 부서들이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쓴다는 게 뭐냐 하면, 이 과제와 관련

해서 각 부서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사업개선 등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해야 할 것이 1번 과제입니다. 공모 및 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술인,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모든 부서에서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중에 예를 들면 예술창작본부가 할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6번의 다양한 비평활동 지원은 예술창작본부가 전적으로 감당을 해 나가면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총괄부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담부서가 이 과제들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지금 현장 소위원회와 정책혁신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과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정도의 과제는 사업혁신 TF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끌고 가면서 끝까지 이것을 지켜보면서 수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만일 사업혁신 TF가 만들어진다면 내년 사업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3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5번을 보십시오. 5번을 보면 창작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향유지원 사업들과 연계를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술위원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혁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사업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서가 받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혁신 TF에서 꾸준히 구조개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무처가 논의를 하도록 해 주시고요. 갈 방향만 정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히려 3번의 지속수행과제와 관련해서 강조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정정숙 위원 : 지속수행과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 나가면서 보고를 드릴 거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가 담당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찾아보고 목표 관리를 하는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대림 위원 : 지금 논의안건과 완전히 직결되지는 않았지만 언급이 된 내용이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수행과제 중에 문체부와 예술위가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이 13번에 있는데요.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예술위와 문체부가 자율운영보장 공동선언 이후 실태 점검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도 점검이지만 올해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다음 위원간담회 때라도 준비를 해서 12월 안에 장관간담회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위원간담회 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류재수 부장이 접촉을 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장관님과 위원간담회는 예술정책과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지금 예산 국회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장관님의 일정이 11월 중에는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12월 중에 형식은 3월에 했던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사를 겸하면서 의체를 서로 나누는 형식도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12월 중에 장관님과 위원님들의 간담회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식사를 안 하고 지난번처럼 정책이나 내용 토론을 할 수 있는 워크숍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박종관 위원장 : 방역이 풀리니까 2가지를 모두 할 수 있거든요.

이원재 위원 : 어쨌든 저희가 장관님께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필요하다면 그 정도의 여력은 남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와 접촉하면서 충분한 논의시간과 식사를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2가지를 절충해서 교섭하고 결과를 위원님들과 환류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이 논의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사항인 2021년 문화나눔 2차 선정도서 선정취소 결정이 건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텐데 비공개 논의를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비공개 회의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논의를 종결하고 말씀하신 대로 2주 간 시간을 두고 간담회 때 다시 한번 표면에 올려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할까 합니다.

논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긴 논의에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어서 회의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84쪽의 11월 위원회 전체회의 운영 계획(안)에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예술가의 집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 개최 하되 가능하면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간담회는 18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11월 간담회 일정 및 전체회의 일정 조정)

7. 폐 회 선 언

박중관 위원장 : 이제 모든 차기 회의일정과 관련된 회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정보다 훨씬 시간을 넘겨서 많이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전체회의 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제가 회의를 정리하는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316차와 제 317차 910호 8대 위원장 선출시기(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뭔가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자신의 검손을 드러내는 말로 쓰이고는 하는데, 제 경우에는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족해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사는 동안엔 능력도 발휘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제 경우에는 다른 분들 이야기 잘 듣고요, 장점을 잘 조합하고 혹시 단점이 생기면 잘 감싸는 능력, 그런 것도 능력이라면 그런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제316차 위원회, 제317차 제910호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위원님들이 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사무처와 함께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설혹 개별 권한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전체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어렵게 복원된 합의제 구조의 바람직한 완성을 위해 위원 개개인이 가진 권리를 더 큰 대안에 양보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고민 끝에 준엄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결정에 저는 제 의지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성과는 오직 현장 소통과 지원 사업의 결과로만 말할 수 있으니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독창성의 영역을 넓혀 가는데 역할을 강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주어진 시간까지 말은 바 소임을 다 할까 합니다.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들께는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결정이 우리나라 문예 진흥에 어떤 큰 변화된 장점을 가져올지 자리를 지키는 동안 늘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저 역시 현장 예술계의 구성원의 한사람입니다. 한국 예술이 있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이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어려워지면 한국 예술도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과거 블랙리스트를 겪으며 그런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와 예술현장은 지원기구와 예술인이라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서로 상보관계이며 때로는 함께 대안을 내는 운명공동체의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예술현장, 예술인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의사결정은 지금 조건에서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깊은 고민의 결과입니다. 이 결정의 배경이 되는 위원회의 높은 의지를 헤아려 살펴주시고,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 지지의 바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성공한 지원 사업을 위해 한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기관의 신뢰회복은 아직도 먼 길입니다. 멀고 어렵더라도 현장의 신뢰를 더 크게 얻기 위해 저희 위원회는 더욱 분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사무처장의 빈자리와 전문가 극장장의 채용 등 비어있는 인사 문제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시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더라도 예술 현장이 반대하는 일은 위원회가 결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 하신다면 10월 정기 위원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6분 회의종료)

